

“고객 5561명 IMSI 유출 확인… 피해자 금전부담 모두 면제”

KT 소액결제 사태 일파만파

김영섭 대표, 고개 숙여 사과
유심 교체·보호서비스 지원

전례없는 방식… 원인규명 시급
제도적 보완·책임 강화 등 불가피

KT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충격을 받고 있다. 피해 규모는 현재까지 278건, 금액은 약 1억7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경찰, 보안업체가 합동 조사에 착수했지만 범행 수법과 목적 등이 기존 해킹 사례와 달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김영섭 KT 대표는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고객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KT는 자체 조사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팜토셀)을 통한 국제이동 가입자 식별정보(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KT는 약 1



KT 김영섭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 부사장, 김영섭 사장, 이현석 커스텀어 부문장 부사장. /손진영기자 son@

만9000명의 고객이 팜토셀의 신호를 수신했고, 이로 인해 5561명 고객의 IMSI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KT는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고객 5561명에게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무료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보안업체는 차량에 기지국을 신

고 돌아다니며 신호를 가로채는 ‘위드라이빙’ 수법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단순 신호 탈취만으로 본인인증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이 탓에 IMSI 외 다른 개인정보 또한 탈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사례는 주로 티머니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형태로 나타났

다. 하지만 티머니 충전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해 해커가 직접 이익을 얻기 어렵다. 상품권은 제3자 사용이 가능하나 현금화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KT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해석이 엇갈린다. 결국 피해자들의 금전적 부담은 KT

가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이번 사건의 성격과 피해 범위에 따라 앞서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위약금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사태는 KT가 지난 7월 ‘정보보호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발생했다. 초기 대응에서 원인을 ‘스미싱’으로 오인해 조치가 늦어진 점도 비판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팜토셀을 이용한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결제로 이어지려면 추가 인증 정보가 필요하다”며 “아직 전례 없는 방식이라 원인 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국내 이동통신 보안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과 통신사 책임 강화, 보안 투자 실효성 검증이 불가피해졌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몰입감 넘치는 현장체험·참여형 행사로 글로벌 팬 ‘공략’

도쿄게임쇼 2025

日 성우 초청 토크쇼, 포토존 등 마련
현장 플레이 체험존으로 신작 체험
체험형 전시, 라운지 공간도 운영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 마쿠하리멧세에서 개최되는 ‘도쿄게임쇼(TGS) 2025’를 단순 게임 신작 공개가 아닌 현장 체험·팬 이벤트 중심으로 강화하고 있다. 각사는 신작 시연, 굿즈 증정, 코스프레 포토 세션, 성우 무대 등을 마련하며 일본 및 글로벌 팬 확보 경쟁에 나선다.

컴투스는 ‘도원암기 크립스 인페르노’ 부스 디자인을 레드와 블랙 중심의 다크 판타지 분위기로 꾸미며 몰입감을 높인다. 테스트 섹션에서는 방문객이 PC와 모바일 두 플랫폼에서 신작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

이벤트 무대에서는 주인공 이치노세



도쿄게임쇼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키 역 성우 우라 카즈키와 코우가사키 진 역 성우 니시아마 코타로가 참여하는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으며, 주요 캐릭터 코스프레 포토 세션, 인플루언서 초대석, 포토존 등 팬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부스에서는 애니메이션 TV 원작의 깊이 있는 스토리와 생동감 있는 전투 연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

메어(카제나)’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미래시)’ 양 게임에 대해 현장 플레이 체험존을 마련한다.

카제나는 스토리와 전투 콘텐츠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방문자 전원에게 카드팩을 증정하고, 렌터블러 포스트카드·SD캐릭터 스티커·쇼파백 같은 한정 굿즈도 주어진다. 유명 코스프레 모델이 오리 모에와 시노노메 우미가 카제나 무대에서 포토세션 및 토크쇼를 진행한다.

미래시는 인기 모델 에나코가 등장해 토크쇼를 갖고 미공개 특별 게스트도 참여 예정이다. 미래시의 실제 플레이 모습 공개는 이번이 최하다.

엔씨소프트는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부스를 통해 PC 및 모바일 게임 시연, 레이드 콘텐츠 체험, 코스프레 포토 이벤트, 생방송 무대 행사 등을 운영한다.

특히 27일 오후에는 일본 유명 성우 3인이 무대에 올라 게임을 소개하고 멀티플레이 콘텐츠를 직접 시연한다. 관람객들은 11종의 캐릭터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으며, 게임 이야기 및 캐릭터 특성 등에 대한 생생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넷마블은 ‘일곱 개의 대죄: Origin’과 ‘몬스터 길들이기: Star Dive’ 두 작품으로 총 52대의 시연대를 준비했다. Origin에 28대, 몬스터 STAR DIVE에 24대가 배치되며, 각각의 시연 공간에서 스토리 모드 및 오픈월드 탐험, 보스 타임 어택 콘텐츠 등이 체험 가능하다.

부스는 Origin의 거인족 다이엔 조형물, 몬길의 마스코트 야옹이, 일곱 개의 대죄 대표 마스코트 호크 돼지 등 대형 테마 조형물과 장식으로 꾸며져 관람객 시선을 끈다. 팬들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코스프레 쇼 및 인기 성우 토크쇼도 계획 중이다.

펠어비스는 ‘붉은사막’의 일본 시장 일반 공개를 이번 TGS 2025에서 처음으로 진행한다. 방문객은 초중반 퀘스트와 대규모 전투 장면 등이 포함된 오픈월드 데모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전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래픽·사운드·이펙트 등 연출 요소 강화된 체험형 전시가 꾸며진다. 관람객용 인터뷰 영상 및 제작진 발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넥슨은 퍼스트 디센던트 전시 부스를 통해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라운지 공간과 탈 것(호버 바이크) 체험 요소, 코스튬/코스프레 콘텐츠, 캐릭터 코스튬 플레이, 무대 이벤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27일에는 개발진이 직접 부스를 탐방하며 라이브 방송으로 게임의 주요 콘텐츠 및 부스 구조를 소개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SDS, 기업고객 위한 ‘AI 풀스택’ 전략

‘리얼 서밋 2025’서 공개

삼성SDS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고객 초청 행사 ‘리얼 서밋 2025’에서 기업 고객을 위한 ‘AI(인공지능) 풀스택’ 전략을 발표했다.

AI 풀스택은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프라부터 플랫폼, 솔루션, 컨설팅까지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SDS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기반으로 생성

형 AI 플랫폼 패브릭스, 협업형 AI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 업무 자동화 도구 브리티 오토메이션 등을 중심으로 풀스택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풀스택 서비스보다 우수한 점을 묻는 말에 이준희 삼성SDS 사장은 “기술 역량에 더해 산업별 높은 이해도가 강점”이라고 답했다. 삼성SDS 송해구 솔루션사업부장은 “SAP, 워크데이 등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제휴, 국내 유일의 프라이빗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제공 경험이

차별 요소”라고 설명했다.

‘풀스택 서비스가 기업의 기술 의존도를 높여 록인(중속)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사장은 “풀스택은 중요한 전략 중 하나지만, 모든 고객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각 기술 레이어별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고객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삼성SDS는 “전체를 통합하되 고객별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 사장은 “삼성SDS는 플랫폼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풀스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익시오’ 보이스피싱 탐지 고도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LG유플러스가 AI 통화 서비스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익시오는 통화 중 대화 패턴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했지만, 이번 승인으로 실제 보이스피싱의 성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탐지 정확도가 높아진다. AI

가화자의 음성을 분석해 성문 정보와 유사도를 판별하고 일정 수준 이상 일치하면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탐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상용화 과정에서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앞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 모두 텍스트 분석과 성문 비교를 결합한 복합 탐지 모델을 적용해 탐지율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유변조 음성을 가려내는 ‘안티답보이스’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보안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김서현 기자